

‘미래보다 현재 즐기기’... 비싼 ‘종신’ 1만원 ‘실손’

(보험)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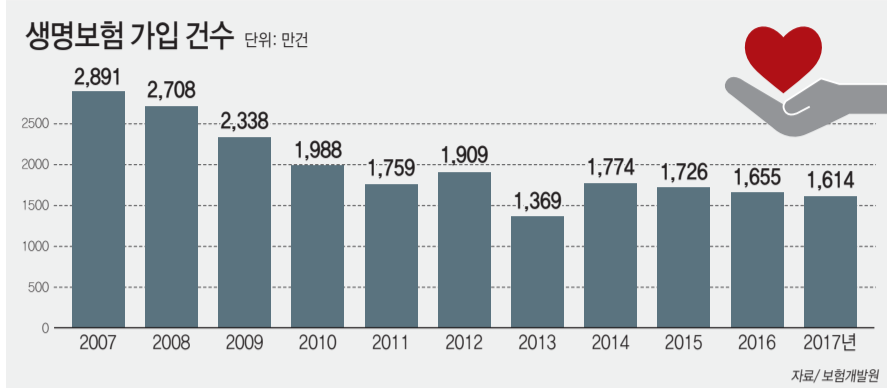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와 금융

보험에 부는 울로 바람

미래보다 오늘 대비하는 움직임 ↑
비싼 보험료, 밀레니얼 세대 큰 부담
간편 가입절차·실속형 보험 선호

직장인 김 모씨(35)는 아직까지 종신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없다.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기엔 매달 1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다. 대신 김 모씨는 10만원 가량을 운동하는데 쓰기로 마음먹었다. 김 모씨는 “적은 월급으로 원룸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하다”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겨울시즌 스키 시즌권(정액권)을 끊은 손 모씨(29)는 스키장을 가기 전 모바일을 통해 스키보험 하나를 가입한다. 하루 1500원대 보험료만 내면 스키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모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했으면 이보다 비싼 실비 보험을 추천했을 것”이라며 “비용이나 보장면에서도 필요한 보험에 일



시적으로 가입하는게 효율적이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올로(you only live once)’.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살라는 이 단어는 흔히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를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미래에 투자하기 보단 현재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성향이 최근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생명보험 가입보다는 오늘을 대비할 수 있는 1만원 내외의 미니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찾고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해야 하는 보험업계는 저렴한 가격에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편리

성을 추구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1614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40만5617건 줄고, 지난 2007년에 비해 1276만건 이상 줄었다. 2030세대의 생명보험 가입건수도 하락세다. 2016년 20대의 생명보험 보유계약건수는 722만 6590건으로 전년 대비 1만3265건 줄었다. 30대 생명보험 가입건수도 2014년 1513만4952건에서 2015년 1463만 7060건, 2016년 1316만5214건을 기록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 가입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비싼 보험료’가 가장 먼저 꼽힌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실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하나씩 가입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출할 보험료도 빠듯하다”면서 “생명보험은 가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고 했다. 보험 가운데 1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생명보험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가입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설계사를 통한 면대면 상담보다 빠르고 간편한 가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보험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1만원대 보험, 밀레니얼 세대 공략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앞다퉈 미니보험을 내놓고 있다. 미니보험은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인 상품으로 소액 단기보험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보험기간이 1회성이거나 1~3년으로 짧다.

특히 비대면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보험업계는 주로 다이렉트 보험(온라인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설계사 채널대비 15%까지 보험료가 저렴해 밀레니얼 세대 고객확보에 유리할 수 있어서다.

대면하거나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방식도 줄고 있다. 지문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계약조회, 증명서발급,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과 연동해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싸도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골라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가입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간편 송금앱 토스도 실속형 미니보험을 출시해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여러 가지 보장을 넣은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입하게 해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스관계자는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비용면에서 부담없고, 빠르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용덕 “새 상품·손해보장 기법 개발... 인슈어테크 개척”

(손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기자간담회

맞춤형 보험 등 신비즈니스 모델 확립
책임 보장 강화 등 실천 혁신과제 꼽아

손해보험협회는 새로운 상품과 손해보장 기법을 개발해 신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것을 올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김용덕 손보험협회장은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전통적인 영업 방식과 서비스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맞춤형 보험과 인슈어테크 등 새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신규 보험가입이 정체되는 등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 경영 불확실성 확대 및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행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원수 보험료 증가율은 지난 2017년 4.5%에서 올해 2.7%로 떨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신규 보험가입



김용덕 손보험협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손해보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을 유지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알고리즘,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손보험협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천 혁신과제로 ▲맞춤형 보험서비스 창출 ▲인슈어테크 활성화

▲배상책임 보장 강화 ▲국제화 지원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손보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한정된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하다 보니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라며 “기존 상품과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과 똑같이 영업해서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처 다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이라든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

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계와 같이 고민하고 당국과 협의하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손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이나 생활밀착형 소액 간단 보험 등의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기반의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불만이 예측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누수되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손해보험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손해보험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비급여 의료제도,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등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40억 → 15억으로 낮춘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업을 할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본이 많지 않은 소규모 펀드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폐지해 투자일임업 자기자본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 있지만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업체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월17일~2월26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57억 ‘꿀쩍’... 18명 적발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43)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지급률 100% 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 받았다. 이후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차례 교통사고를 내 추가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

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18명 중 17명(94.4%)이 남성이고, 40~50대가 13명(72.2%)에 달했다. 이

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18명 중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전체의 61.1%, 보험금은 각각 19억7000만원, 19억5000만원으로 총 보험금의 69.1%를 차지했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 시점과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험사기에 악용했

금감원, 수사기관에 의뢰 1인 평균 3.1억 보험금 수령

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 자료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 장해진단자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희주 기자 hj89@